



특집 2

21세기 완충용 시장 점검

김진표 / (주)영동 이사

1. 국내 완충용 시장

근래들어 각 기업체들마다 유통환경에 따라 포장방법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방안을 갖고 포장 연구소 건립은 물론 유통환경 TEST TEAM을 만들어 포장에만 전념하며 포장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각 선진국에서도 완충재에 대해서 제조사 의존방식에서 사용자 요구방식으로 SPEC을 시정할 만큼 국내 완충용시장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IDEA속출은 물론 새로운 상품이 계속 소개되고 있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없이 환경규제를 발표했던 1994년, EPS, EPE, EPU 모든 업계는 물론 소비자까지 대책마련에 고심하여 이들 사용자는 종이에 의존하여 필프폴드, 팜핀폼 등 많은 대책을 모색하였지만 결국 1996년 정부의 재활용 분리수거 발표이후 새로운 완충재 개발보다는 종전의 품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환경문제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안고 있다.

1) 국내 완충재 가격 인상 및 생산감소

국내 완충재의 가격은 1996년 3/4분기까지 그런대로 가격형성이 원만히 유지되었으나 환율상승 및 국제원유가상승 등으로 1996년 4/4

분기부터 현재까지 가격 폭등으로 이루어져 제조자나 사용자 공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원료 메이커의 원자재 공급이 원만하지 못해 공급차질까지 빚고 있으며, 현재 국내 불황으로 인해 급격한 생산감소까지 겹쳐 국내 완충재시장은 최대 어려움을 맞고 있고, 일부 제조업체들의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까지 겹쳐 한번 쯤은 재정비가 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2) USER의 구매방법 변경

사용자의 구매방법은 근래들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서 변화란 대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구매방식자체를 GLOBAL 방식으로 채택해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가 값싸고, 품질 좋고, 원활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부품 구입은 물론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ISO9000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완충용시장도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절박한 상황에 당면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3) 완충용시장의 대응력

21세기 진입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사용자중심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없이 대외경쟁력을 꿈꾸는 것은 이제 완충용시장에서도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



특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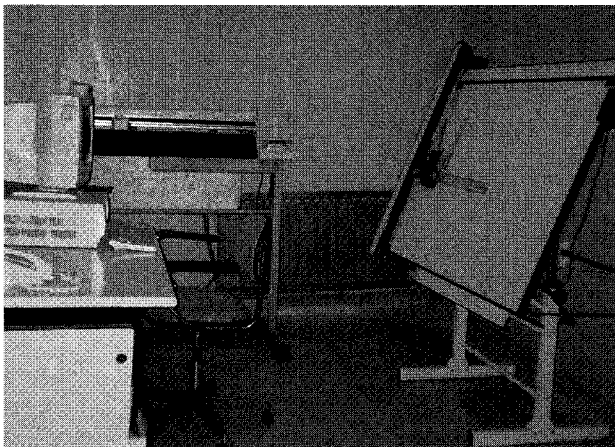
다. 포장이라해서 싸개역할과 간단한 논리의 포장개념으로 생각하는 단일한 생각보다는 좀더 근대화적이고 공학적이고 DATA화 할 수 있는 포장방법으로 변화되어야 겠으며 공급자 편리대로 제조하는 방식은 탈피해야겠다.

끝으로 완충포장은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IDEA를 창조하여 선진포장을 주도하여 신상품개발에 주력해야만 완충용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2. 영동산업에서 생산되는 분야별 제품소개

1) 영동산업의 생산관리 SYSTEM

영업, 설계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관리 SYSTEM은 ON-LINE전산화로 연결 되어 있다. 영업의 신규수주는 곧바로 분석이 끝나면 연구실에서 CAD, CAM에 의해 도면화 된다. 도면작성이 완료되면 작업표준 시방서가 결정되어 자재부문까지 BOM이 구성되어 거래선으로부터 정식 ORDER가 진행되면



▲ 전산 및 CAD System(설계를 위한 설비보완)

곧바로 단납기체제에 돌입하는 생산관리 SYSTEM으로서 완충제 포장업종의 5년 앞을 내다보고 선진 SYSTEM을 개발한 것이다.

2) 완충제포장 설계

첫만남의 상담에서 URER의 입장에 서서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은 안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신념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심어준다.

심볼을 갖고 국내, 국외 유통상태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BUYER요구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한 뒤 곧바로 설계로 돌입한다. SAMPLE작업 시간 24시간이내 초 SPEED시대의 영업 대응력을 경쟁력으로 강화 하기 위해 모든 사항은 연구실에서 선두지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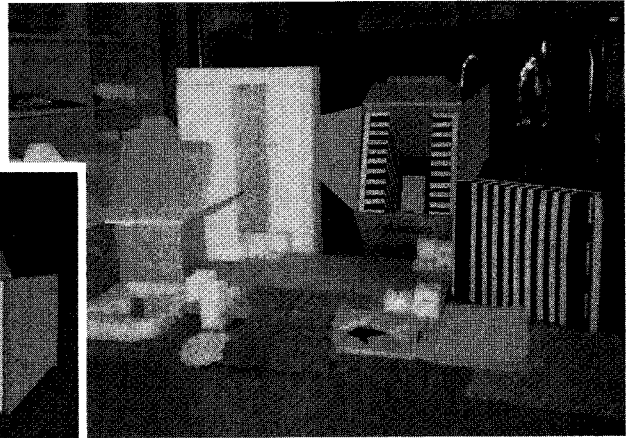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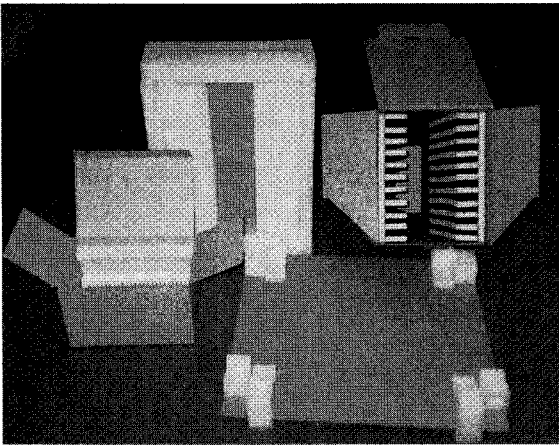
자체에서 도면을 설계하고 검토하여 항상 KNOW HOW는 충분히 갖고 있어 개발당시 문제점에 대한 대응력은 그 어느 회사보다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3) 완벽한 품질관리 SYSTEM

ISO9002 인증획득, 100PPM 품질 인증 획득으로 품질관리 SYSTEM 또한 철저한 시방서 관리를 함으로써 품질 MANUAL의 기술부문이 생산관리 SYSTEM과 자동연결되어 추정적 관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최상의 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신뢰성 시험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품질보증체제에서도 한발앞선 관리를 하고 있다.

4) 영동산업의 생산 SYSTEM

전공정은 눈으로 보는 관리가 철저



▲ 영동산업에서 생산되는 ITEM

◀ 영동산업에서 개발한 신상품

하게 되어있으며 공학적으로 LAY-OUT이 설정되어 항상 적정재고 운영으로 생산효율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물류흐름을 방해하는 불합리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포장원충재 업체로는 최초로 창고관리를 RACK SYSTEM화 및 CODE화하여 완제품관리를 철저하게 함은 물론 물류 COST를 절감하고 있다.

5) 분야별 제품소개

(1) 제품의 1차포장(BAG 가공)

모든제품의 1차포장은 BAG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BAG의 종류에는 PE발포지+FILM BAG과 일반 BAG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BAG은 생광분해BAG, 자크 BAG, LDPE, HDPE BAG, 대전 FILM BAG, SHILDING BAG, ANTISTAIC BAG 등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이외 TV CASE 및 전자렌지

CASE 등 단순보호용으로 사용하는 NITRON SHEET도 있다. 영동산업에서는 이 모든 것을 취급하면서 슈퍼마켓형의 공급방식과 주문공급 방식 2가지를 혼용하여 소비자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판매하고 있다.

(2) 제품의 2차 완충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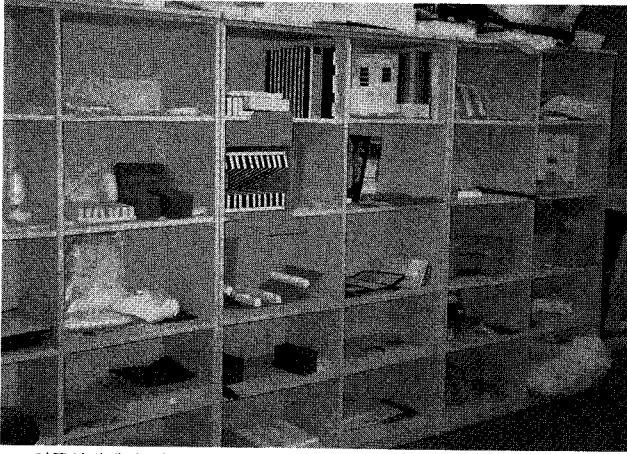
2차 완충포장으로는 주로 EPE, EPU, EPS BOARD를 수직절단 및 프레스화 하여 여러 가지형태를 향상시키고 LOST를 절감한 신상품 등 기발한 기술을 접목시켜 가공하는 완충포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96년부터는 상호간의 과열경쟁을 피하고 영동산업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개발 SYSTEM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현재 영동산업은 내부적으로 많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개발을 완료하여 각



특집 2



▲ 영동산업에서 생산되는 ITEM 전품목 전시

거래처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영동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 여러분야에서 선을 보일 것이다.

주로 영동에서 제조한 완충포장은 전자, 정밀 제품을 2차 포장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점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품종 소Lot 생산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며 생산 LINE도 항상 이동 변형 생산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고 있다.

(3) 단위포장 및 특수포장재

이외 부품을 보호하거나 단위적으로 특수포장하는데 사용하는 TEFRON FELT 및 FELT 완충재 및 SPONGE 완충재를 이용한 BLOCK, SPONGE ASS'Y이외 RUBBER, 부직포, 버블 BAG 등도 취급하고 있으며 근래 들어 종이 PALLET도 개발하여 모 거래처에서 TEST중이다.

3. 시장적용현황

현재까지는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시장형성이 되었지만 제품자체의 COST절감 및 CABINET의 소형화, 건설부문의 과학화, 내부과학적인 보호 방법, 유통환경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완충포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현 국내시장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및 전자 업종에 국한되어 있지만 2~3년만에 포장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게 되어 전부문에 걸쳐 완충포장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며 합성수

지 또한 새로운 대체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만 보급한다면 현재의 불황 타개는 물론 완충재 시장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4. 맺음말

국내 여러 완충재 포장을 선도하는 각 기업 관계자들은 당면해 있는 코앞의 문제보다는 향후 3~5년 앞을 내다보는 포장개발에 박차를 가해야겠으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자체적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 미주, 유럽 등 선진국의 포장상태를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내것으로 만들고 설계능력을 갖추어 풍부한 IDEA로 국내 완충용시장을 주도한다면 끊임없는 발전이 계속될 것이다. ☐